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일로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이다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주간충현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강산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달고 오묘한 그 말씀(금요전례)- 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천국과 영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5).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과 연관시키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사랑받고 아끼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높고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와 영생을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와 영생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비밀을 다시 기억해보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살펴보았다. 이 비밀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새롭게 나타내 준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약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질서를 바꾸어 놓고 인간의 모든 규례와 관례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였었다(사 2:2-4). 어디 그 뿐인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연의 모든 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사 11:8-9). 지구가 변화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며, 모든 창조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다 부패되고 상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다(사 65:17, 사 66:22). 하지만 그러한 일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꾸어버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대에 들어와서 그 질서를 그대로 놔둔 채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세대는 아직도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임할 새 세대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도, 이 세대에서도 누릴 수 있다. 영생은 장차 임할 새 세대, 영광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영생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도 이미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다.

영생은 참으로 미래에 속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오셔서 심판할 때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모습이 예언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심판의 결과는 34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

제5장 천국의 생명 (1)

여 나이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것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장차 올 저 세대에만 있는 나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4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장래에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오써 세워질 그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질문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23절 참조)과 연결시켜 말씀하셨다. 이렇듯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장래에 속한 것이다. 영생의 미래성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 "도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민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2).

영생은 육체의 구속까지 포함한다

사도 바울은 장차 죽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였다(고후 5:1-4). "죽을 것이 생령에게 삼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4절b)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전인(全人)과 관련되어 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장차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때(고전 15:50), 우리의 연약한 몸은 생령에게 삼기운 바 될 것이다. 이렇듯 영생은 육체의 구속까지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것은 곧 혈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가 생명의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죽어가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길고 긴 길일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갑작스럽게 임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좀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

어느 날 우리의 썩을 몸은 생령에 의하여 삼켜질 것이다. 아, 이 표현은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지! 그렇다. 모든 고통, 아픔, 질병들은 앞으로 올 새 세대의 생령이 밀려올 때에 모두 치료될 것이다. 병원이 전혀 필요 없을 것이다. 영생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참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 그 날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영생'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천국일꾼 양성이 목표입니다

2004년도 후반기 충현장학생, 총 273명 지원

2004년도 후반기 장학생 신청이 지난주(11일)로 마감되었다. 이번엔 신청을 마친 지원자들은 모두 273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젊은 일꾼들이 충현장학생으로 지원하고, 또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천국일꾼 양생!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젊은 일꾼들을 돕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단순한 구제가 결코 아니다. 복음 안에서 무뎠던 자라고 있는 젊은 일꾼들이 천국일꾼으로 양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보살피는 매우 독특한 사역!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운영되는 충현장학회의 실제 사역이요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단순한 장학헌금을 내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앞으로는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천

국의 일꾼들로 일할 수 있도록 결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기도해 주는 일까지도 우리의 몫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학학을 성결하는 과정에서 세상에서처럼 정적의 우수함을 따지지 않고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며, 우리가 결서로 돕고 이끌어줄 수 있는 충현의 젊은이들을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충현장학회의 이런 취지와 목표를 늘 기억하여 이 일이 단순한 구제사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로 적극 후원해주시기를 바란다.

〈다음 일정〉

논술 면접 : 7월 24일(토) 오전 9:30 교육관 5층

GREATER GRACE

***"But He gives a greater grace. Therefore it says,
"God is opposed to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James 4:6)***

James, the brother of Jesus, wrote this biblical verse. He wanted believers to understand that the grace of God is always giving, and always willing to give more. Sadly, many of today's Christians do not even think about the grace of God. Sadder still, many of today's preachers do not preach about it. The consequences of such neglect are that people try to obtain God's grace through their wisdom, thinking it has to do with earthly fruit. They go to church, give money to the church, or help in the church hoping to earn God's favor. Their motivation is improper because their understanding of God's grace is wrong. Every virtue should be traced to grace. We must clearly point out the fountain of inward grace as well as the stream of manifest service that flows from it. The principle of grace produces the practice of goodness, and no one can create or preserve that principle but the God of all grace. Therefore, when we falter or fail, it is wise to seek God for His greater grace.

Today's verse shows us a contrasting truth. Observe the text in its connection: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v. 3), "You adulteress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ostility toward God"(v. 4), and "Or do you think that the Scripture speaks to no purpose: 'He jealously desires the Spirit which He has made to dwell in us'(v. 5)? These truths are countered with another truth, "But He gives a greater grace"(v. 6). When sin abounds, grace still more abounds! When we discover more of our weakness, God gives more grace. When we are in trouble, the Bible tells us to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Heb. 4:16). Seek God and He will give you more grace, "Therefore humble yourself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1 Pet. 5:6). When you confess your sins, when you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God will give you the power, He will give you His Holy Spirit for more grace. Sinner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God will receive greater grace. That is God's promise. He never gives up on us. He is always ready to give us more grace for victory to those who humble themselves,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Lk. 14:11). Praise God that there is no limit of measure to His increasing gifts of grace.

This wonderful verse shows that God is ever on the giving hand. Observe the general truth of the text, "But He gives a greater grace". It is God's way to give more grace. He gives us new and larger supplies of grace, and even higher orders of grace. He gives more grace as the old nature works more powerfully. This should be a truth of daily use for us. It should encourage us to enter wider fields or perhaps take on duties that are more difficult. It should

comfort us in our deeper everyday troubles. It is an assurance of hope during the severe tests of sickness and death. Knowing it is the nature of God to give more and more grace, let us have growing confidence in Him.

Believers need to know and practice this verse in their daily lives. Our spiritual poverty is our own fault, for the Lord God gives grace to all who believe for it. Our spiritual growth will be to His glory, for we can only grow because He gives more grace. What a wonder to grow constantly! What a good God we have to turn to. Let us rejoice in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because the further we go the more grace shall we know. As such, let us humbly go forward with confidence and courage, "For though the Lord is exalted, yet He regards the lowly, but the haughty He knows from afar"(Ps. 138:6). That is God's way. "Though He scoffs at the scoffers, yet He gives grace to the afflicted"(Prov. 3:34). Isaiah 66:2 tells us, "But to this one I will look. To him who is humble and contrite of spirit, and who trembles at My word."

My dear friend, the biblical story of the prodigal son is a good illustration concerning God's grace toward us. Do you remember what the young man said when he repented and returned to his father? He cried,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Lk. 15:21). His sins were great, but his father's grace was greater. His father instructed his household, "Quickly bring out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andals on his feet; and bring the fattened calf,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again; he was lost and has been found"(Lk. 15:22-24). God's grace is even greater than this earthly father's is. God says,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which you should go; I will counsel you with My eye upon you. Do not be as the horse or as the mule which have no understanding, whose trappings include bit and bridle to hold them in check, otherwise they will not come near to you. Many are the sorrow of the wicked, but he who trusts in the Lord, loving-kindness shall surround him"(Ps. 32:8-10). God takes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rather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In Ezekiel 33:11, God says, "Turn back, turn back from your evil ways! Why then will you die, O house of Israel?"

Jesus is calling now,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en-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Mt. 11:28). Today's Bible verse tells us that God gives a greater grace to the humble. Let us be humble. Deny yourself, follow Jesus, and He will give you His greater grace. Please, trust the grace of God. Try it by prayer, prove it by faith, bear witness to it with passion, and praise it with grateful joy. Amen. 

다음 주일 설교

더욱 큰 은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권사 칼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명정희 (권사회 회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후 5:13-21 참조)

금년도 권사회의 이어입니다. 이 표어대로 우리 권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갈릴리움에서 2004년도 권사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600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참석하여 주저서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일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사회에는 967명의 권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교회의 여자 성도 중 연령층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권사님들을 뵈며 항상 존경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 분들을 보면서 저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회에서는 14년 전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구를 이끌고 교회로 찾아서 잠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던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나면 교회에서 주무시기를 일상으로 삼으셨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처럼 차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라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타며 불편한 다리를 몇 번이고 쉬어 가며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야간 시간을 맡아서 24시간 연속 기도에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 권사들의 수고와 한결 덜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단 일뿐이라고 기도의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24시간 연속기도에 힘을 실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몸도 불편하고 눈과 귀도 어둡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행동도 느리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찬송가를 잘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기에 제일 정갈하게 차려 입고 오신다는 권사님, 젊은 사람들에게 폐가치지 않으려 교회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하신다는 권사님,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아껴두셨다가 선교 헌금에는 큰 손이 되시는 권사님, 죽은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선교지로 향하시는 권사님, 또 비록 젊은 50-60대 권사님들은 찬양대, 교육부서 등 각 부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권사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끝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요한에 매시지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
(딤후 2:5)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극히 큰 영광의 하나님이다(창 2:14).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한 마디로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골 2:5 참조)이다. 그만큼 우리는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어디 그런인가?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존재이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영원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참한 죄인을 화해케 해주는 중보자로 오직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었다.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로 태어났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친한 어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골 1:38). 겉모습만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으로 혈육을 함께 하셨다(히 2:14).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으며, 눈물도 흘리셨고, 주무시기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셨고(마 1:1,16),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여인의 젖을 먹고 자라셨으며, 핍박자를 위해서 피난을 가셨고, 육신의 아버지를 정성껏 섬기셨으며, 모든 일에 고생과 수고와 고난을 겪으셨다(골 2:6,7).

우리들과 같이 자랐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자라셨다. 특별히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써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시험을 친히 다 받으셨지만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었다(골 4:13).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며, 시험당하는 우리를 구출하여 여겨주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신다.

영적으로 우리와 같이 자라셨다.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와 같이 자라셨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셨다(마 3:13,16). 이렇게 일한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닌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니라 하되”(눅 4:18,19).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한 자들, 돈 많은 자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노닌 자, 눌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적 부요와 자유와 다시 몸을 선물로 얻게 하셨다. 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영적열을 받지 못했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조차 영점을 받지 못하고 백척을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요 1:11). “그 열사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니 간교를 꾀한 자들의 열교와 있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열사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나”(사 53:3). 우리 인간은 얼마나 비밀하고 악한 존재인가! 책이 될 것들은 애지중지 애지 중 알면서도, 멸망한 인류를 위하여 하는 영광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른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무시하며 배척한다(벧 2:8).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을 받고 계신가?

사람앞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히 10:12).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후에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히 1:3 참조)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며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하늘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자. 우리의 죄악이 셀 수 없이 많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낙심이 될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자. 어찌하여 좋은 지모를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체휼하셨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중보자이시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찾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골 3:1).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걸신 길을 보여주시실 것이고, 그 길로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죄인에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간섭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믿음을 성장시킨 선교

우리팀이 가게 될 선교지가 결정됐을 때 오랫동안 선교의 문이 닫혀있던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음에 호기심과 긴장감이 생겼다. 그러나 언어혼란에서부터 CMTC 훈련,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등의 훈련을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통역, 운전기사, 숙박, 비행기 좌석표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현지에서 들어온 부정적인 정보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모으고 무장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출발 일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일정에 맞춰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었고 통역도 구했다. 주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가야하는 나라는 선교가 무척 힘들었다. 그들은 정교회에서 가르친 교리를 정통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초대 교인들이 믿고 따르던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 전도할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선교할 것을 다짐하며 떠났다. 선교기간 동안 만난 많은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우리가 준 전도지를 다 읽고 영접기도를 함께 했던 사람들, 전도지를 더 주기를 원하는 사람, 정교회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찬양을 부르도록 허락한 가정 등이다. 또 자신은 개신교 신자인데 몸이 아파 예수님께 기도해도 안 낫다고 하던 사람도 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위로받고 돌아와야 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간 나라는 땅이 넓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다. 여러 민족들을 두루 만났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정교회 교인은 전도지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권적으로 전도지를 쥐어주기도 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없어서 냉정하다고 느꼈는데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 농촌 마을에는 집마다 개가 많이 있었는데 주인이 개를 잘 다스려 우리가 잘 지나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기도 하였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서 주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는 5국에서 이루어졌고, 그 만큼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였다.

이 용 표(집사, 15교구)

복음의 단비가 내리길 소원하면서

우리 팀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어떤 마을을 발견하고 전도하기 위해 2인 1조로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동네는 한기롭고 아이들이란 간간히 오가고 있었으며 어른들은 들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집 저집 가듯거리며 사람이 있나 살펴보니, 허름한 집의 대문 뒤로 한 아주머니가 일하는 모습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자 현직으로 큰소리를 내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OOO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물으면 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보내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만나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읽게 하였습니다. 전도지를 다 읽고 난 아주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한 시간 후에 다시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나 다시 전도지를 찾아다니며 그 집을 찾았지요. 그 집에는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과 아들친구, 또 어린 아이들 6명이 모여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고, 그 집의 귀한 것들을 다 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누기 전 온 대원들을 다 불러서 그 아주머니와 이웃들과 함께 19명이 모여서 영접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아주머니께 기도예목을 물었더니, '이 땅에서도 한국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다시 한번 감격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우리 대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포옹을 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여기에 또 다 있었군요.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을 품쌍히 여기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로 못 한 꼴로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쓰실 때는 얼마나 일꾼이 부족하였는지요. 주님, 언약하심만 순종만 하였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하면 썩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 열 아(권사, 2교구)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긴 여정 끝에 우리가 도착한 선교지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우리들의 미팅한 생김새와는 달리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 하며 잠시 우리들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 사람들의 착박한 영적상태를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깨닫았습니다. 광활한 평야는 평화로워보였지만 비가 오지 않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책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현지 사람들을 바라보며 메마른 평야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메마른 있음을 느꼈기 가슴이 저미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정교회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먼저 복음을 들은 자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일뿐이지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이 착박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머무는 동안 민박집의 가정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역 중에 언어의 장벽이 제일 크게 와 닿았습니다. 준비한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해 그들이 금금해 하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정교회와 우리의 복음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언어를 준비할 때 생활용어를 좀더 늘리고 예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가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만나야 될 영혼들을 불러주시 하나님께 반영한 영향을 돌리고 기도해 주신 총현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 인 회(권한, 2교구)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12일(화)-7월 20일(화)	대학부 21	김승곤	7월 12일(화)-7월 21일(수)	17교구 3지역	한민현
7월 12일(화)-7월 21일(수)	대학부 22	정승구	7월 13일(화)-7월 21일(수)	6교구 2지역	김규석
7월 12일(화)-7월 21일(수)	17교구 5지역	김재홍	7월 14일(수)-7월 24일(목)	18교구 6지역	이연영
7월 12일(화)-7월 21일(수)	17교구 4지역	이종일			

*선교위원회의 방침으로 인하여 국가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단기선교 인터뷰



정영환
(안수전사, 10교구)

1. 출발하기 전 훈련은?

출발하기 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9명으로 저를 빼고 모두 여자 성도들이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신실한 통역자와 운전기사를 만나 남자 팀원 2명을 새롭게 얻은 것과 같았는데, 이 모든 것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 현지에서 사역은 어떠셨는지?

이번 선교는 노방전도보다 축초전도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축초전도를 하다 만난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원전사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복음만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3. 팀원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서로 좀 무뎠는데서 팀장인 저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속내를 알고 친해져서 한 가족처럼 지내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처음 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돌아오는 날짜가 되자 더 늦기까 오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19일(화)-7월 28일(수)	대학부 23	이상혜	7월 20일(화)-7월 31일(목)	대학부 26	안영진
7월 19일(화)-7월 31일(목)	1교구 7지역	영한원	7월 23일(금)-7월 31일(목)	6교구 3지역	김종훈
7월 20일(화)-7월 28일(수)	3교구 1지역	최하늘	7월 24일(금)-7월 30일(목)	6교구 5지역	이영애
7월 20일(화)-7월 29일(목)	대학부 24	김현철	7월 21일(수)-7월 31일(목)	14교구 6지역	김진수
7월 20일(화)-7월 29일(목)	6교구 7지역	안상주	7월 22일(목)-7월 30일(목)	9교구 1지역	동방운운
7월 20일(화)-7월 30일(목)	대학부 25	이준우	7월 22일(목)-7월 30일(목)	17교구 1지역	송영준
7월 20일(화)-7월 31일(목)	2교구 10지역	김동후	7월 22일(목)-7월 31일(목)	17교구 10지역	권병철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6일(화)-7월 14일(수)	3교구 6지역	정창수	7월 7일(수)-7월 17일(목)	10교구 5지역	김경환
7월 6일(화)-7월 15일(목)	대학부 20	김남환	7월 7일(수)-7월 17일(목)	10교구 4지역	조영철
7월 7일(수)-7월 17일(목)	4교구 4지역	박원희			



여름계절학교를 준비하면서

2004년도 여름계절학교 주제 '거듭난 천국 일꾼'을 대하며, 먼저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친구들에게 거듭남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의 사람으로 일하란' 거듭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두렵고 떨리는 죄인이 어린 유치부 친구들에게 거듭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거듭나 평생을 주님만 사랑한 예수의 종 바울처럼, 저도 온전히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세족식, 죄로 얼룩진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코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오로지 순종함으로써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재현해 보려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 한사람 한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으로 골고도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서로의 발을 씻길 때 회개하는 주님의 은혜가 증반할 것이라 믿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인 헌옷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은 모습인 새 옷을 입는 순서 등을 통하여 유치부 친구들과 교사들과 학부모 모두가 거듭남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신은 벗은 채 겸손하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이제 내일 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골 1:21)라는 고백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강 소영 (집사, 유치부교사)

새가족을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시는 코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새가족을 등록실로 인도하실 때

새가족을 인도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새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등록실에도 함께 오셔서 등록하는 과정을 직접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인도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새가족은 자발적으로 온 새가족으로 분류되어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널리 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동부 새가족들과 장년 새가족들은 본당 1층에 있는 새가족등록실에 직접 오셔서 등록해 주시고, 만 14세 이하인 새가족은 각 교회학교 새가족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신자가 새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각 교회학교와 교회에 참석하는 일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 이후에

새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최소한 등록하는 주일과 다음 주일은 새가족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양육과정을 마치는 6개월 동안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 새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구 심방과 관련하여

새가족이 속하게 되는 해당 교구에서 인도하신 성도님들께 동행 심방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새가족이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하신 성도님들의 집이나 직장이나 제3의 장소를 이용하여 심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교적변호와 새가족양육에 관하여

교적변호는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정착하신 분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적변호를 일찍 받으려는 성급한 대신에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결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가족이 새가족양육부의 교육과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을 격려해 주며, 기도로 격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과 결심을 통해서 문득 밝은 새가족들이 우리의 무한한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영입실에서 올림)

외워서 부르는 찬송

오래 전 일이다. 장년1부에 몇 년을 다녔지만 주제 찬송을 부를 때에는 별 의미 없이 찬송가를 보고 부르고 쓴다. 그런데 어느 주일인가 문득 '주제 찬송 정도는 외워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여러 번 불러 보았다. 주일마다 불러서인지 잘 외워졌다. 그러나 이른날 부를 때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외워 결국 안 보고도 잘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안 보고 부르면 정말 재미있고 은혜로웠다. 더 많은 곡을 외우고 싶은 생각에 집에서는 물론이고 목지에서 적어가자고 다니며 열심히 외웠다.

한 곡 한 곡 외워질 때마다 무척이나 신기하고 기뻐다. 나는 성격이 느긋한 편이어서 무슨 일에 그렇게 정열을 쏟은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찬송가를 외우는 일에 재미를 붙인 나는 잡자리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외우기도 했더니 200여 곡을 외울 수가 있었다. 지금은 절반 정도는 잊어버려서 더 이상 잊지 않기 위해 하루에 몇 곡씩을 부르고 늘 찬송가를 부른다가 참된다. 예제는 찬송하다가 문득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가 34장을 매주 부르는 데 1월부터 끝났으니 이제 6월이니까 성도들의 입에도, 귀에도 많이 익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외워보면 누구나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외워야 각자 예배하는 시간에 부를 수 있는 파트로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외워서 부르는 찬양은 분명 더욱 은혜롭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찬송을 외우는 기쁨도 체험할 것이다. 어느 주일에 내 옆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분도 34장을 보지 않고 외워서 부르는 데 나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근년 권사회 주제 찬송인 101장은 내가 외워서 않았던 찬송인데 열심히 부르다 보니 외우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주보를 보면서 내가 외우는 찬송이 적혀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빙긋이 웃음이 난다. 몸이 많이 아플 때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없을 때 이전에 이미 외웠던 찬송을 누워서 부를 수 가 있어 정말 좋다. 참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할 때 쉽게 기도나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려고 해도 그런 때는 기도 줄이 잘 안 잡히고 찬송은 부르게 되는 것이 희한한 일이다. 총헌의 은 성도가 외워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한 달에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 부를 연습이라 생각하며...

최현자 (권사, 15교구)

전도간증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

얼마 전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께 혹 어디가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특별히 필요하신 것은 없는지, 평소처럼 안부를 여쭈던 남편은 그 전에는 한번도 들을 수 없었던 한마디와 함께 화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교회에 열심히 나가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네 가족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해외에 나가 누구를 전도하겠으며 또한 그게 제대로 되었느냐"라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다른 형제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오는 계이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던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듣고 다닐 때는 누가 볼까봐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고 기도원에서 열리는 장년부 수련회에 가라고 하면 대꾸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뚫고 했던 남편이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즈음, 저는 남편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른 새벽 일어나 성경공부를 하였고, 네 명의 부부를 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느낀 것은 선교를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나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갑자기 한 쪽 발이 통통 부어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기에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한 관절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처방이 있는 것도 아닌, 한번 걸리면 계속 관리하고 식이요법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특성상 종종 외식자리를 가져야 하는 남편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남편이라 그런 질환에 걸린 것이 옆에서 제가 무척으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안쓰러웠습니다. 더구나 시 기적으로도 우크라이나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직후에 발병한 것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남편의 밑줄에 위기가 되지는 않을까, 후시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느냐'라고 하여 주님을 원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가우연입니다. 걱정하는 저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총애했던 식사만큼까지 바쁘게 더욱 강건한 육체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다리는 잠시 불편했지만 오히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이라고...

김경순(집사, 4교구)

교회탐방 ⑩ 사무국

따뜻한 살림꾼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교회의 살림꾼, 사무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창 너머로 보던 사무국은 눈 높주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어떤 저런 이야기를 아보다보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 회계

"각 부서에서 사용하실 장소를 신청할 때 제언터 하시면 됩니다. 식사 예약도 받고 세례신청 접수, 세례증서 작성 등을 합니다."

김진영(집사, 회계)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유지철(집사, 회계주임)

"건축, 차량, 증원동산, 자산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선교관을 보우하는 공사를 맡 매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지요." 김병수(집사, 자산주임)

3.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혹 세상에서 사회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하면 그런 일이 없어 좋습니다." 김여연(집사)

"제가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100원이라도 더 드르면 성도님들에게 꼭 가져오십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최은영(집사)

"직장에서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집사)

"같이 일하는 지체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 감사하구요." 유지철(집사)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 일로 되면서 창문 너머로 약간의 괴로움이 있게 느껴졌던 그들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평온하고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심한 손길에 새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리/문진삼)

1. 사무국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은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예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구성구축 세심하게 관리하는 일과 행정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인도하심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드리는 직면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김영일(집사, 사무국장)

2. 얼굴은 자주 뵈는데, 정확히 아시고 계산 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의 맡은 역할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저는 예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조달하고 준비하는 사무를 맡니다. 성찬식, 세례식, 세례문답식 등에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순서지, 주보를 비롯해서 단(壇) 위에서 목사님이 드시는 물 등 아주 작은 부분들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기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여연(집사, 사무주임)

"저는 단기선교팀의 비행스케줄을 예약드리고 비자를 대신 받는 일 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녹음한 테이프와 비디오를 신청받아서 제공도 하구요." 설 성(집사, 음향관리)

"저는 경리파트로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역할이지요. 예를 들어 성령하면 단기선교를 가실 때 내시는 앙공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각 교육위원회의 예산도 드리구요." 최은영(집사, 회계주임)

다움 주일 찬송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다움 주일 찬송 '큰 죄에 빠진 나를'은 예배소서 3장 18-19절의 "...저자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총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총만하게 하시기로 구하노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상해 보자.

1절: 큰 죄에 빠진 길을 잃은 나를 건지시고 넓은 품에 품으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그리고 영원히 부름 노래의 제목이다. 구속의 은혜를 깊이 목상하여 찬송하자.

3절: 그리스도께서 담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것은 주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다. 온 천지가 주의 거룩한 천령으로 때려지고 구속된 성도들이 오의 주님의 영광 중에 매료되어 하모니를 지는 미음을 가지고 가사의 의미를 깊이하여 찬양해야 한다.

큰 죄에 빠진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건져주셨다. 그 천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날마다 주께 귀한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넓고 깊음을 믿는다. 주님에게 주신 귀한 삶을 기대하며 한 주간 동안 기쁘고 기쁨을 이기지 않고 찬송을 목상하며 예배를 준비하자.

(찬양위원회)

함께 하는 이름

박순옥 권찰 (49세, 3교구) 대장암 수을을 하면서 직장도 일부만 절제하고 지금은 합일 치료 종업이다. 경이 짙어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버린다. 그래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무척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박순옥 권찰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자신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도 모두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있습니다. 합일치료를 받기 전과 비교하면 그 자신이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새 가·축·을·원·함·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15	이재우	1	장로회	전남회	1862	김영남	15	장로회	백곡회	1939	유영호	19	장로회	유성회	1956	리라라	19	장로회	2003	황기	19	장로회		
1816	이영삼	2	신부	김정회	1863	김우성	15	장로회	관동회	1940	이순준	19	장로회	이영회	1957	김지현	19	장로회	2004	김태호	19	장로회		
1817	김영희	3	장로회	김정회	1864	김영희	16	장로회	이영회	1941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58	김영희	19	장로회	2005	정기	19	장로회		
1818	전영희	3	장로회	김정회	1865	전영희	16	장로회	이영회	1942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59	김영희	19	장로회	2006	이영희	19	장로회		
1819	김영희	3	장로회	백곡회	1866	이영희	16	장로회	이영회	1943	유영호	19	장로회	이영회	1960	김영희	19	장로회	2007	이영희	19	장로회		
1820	이영희	3	장로회	김정회	1867	이영희	16	장로회	이영회	1944	이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1	김영희	19	장로회	2008	정기	19	장로회		
1821	황기	3	장로회	김정회	1868	이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45	이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2	김영희	19	장로회	2009	정기	19	장로회		
1822	이영희	6	장로회	이영회	1869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46	유영호	19	장로회	이영회	1963	김영희	19	장로회	2010	이영희	19	장로회		
1823	김영희	6	장로회	이영회	1870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47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4	김영희	19	장로회	2011	이영희	19	장로회		
1824	이영희	7	장로회	이영회	1871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48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5	김영희	19	장로회	2012	이영희	19	장로회		
1825	전영희	7	장로회	김정회	1872	이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49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6	김영희	19	장로회	2013	이영희	19	장로회		
1826	이영희	7	장로회	김정회	1873	이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0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7	김영희	19	장로회	2014	이영희	19	장로회		
1827	김영희	7	장로회	김정회	1874	이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1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8	김영희	19	장로회	2015	이영희	19	장로회		
1828	이영희	8	장로회	이영회	1875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2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69	김영희	19	장로회	2016	이영희	19	장로회		
1829	이영희	8	장로회	이영회	1876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3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0	김영희	19	장로회	2017	이영희	19	장로회		
1830	이영희	8	장로회	이영회	1877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4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1	김영희	19	장로회	2018	이영희	19	장로회		
1831	김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78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5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2	김영희	19	장로회	2019	이영희	19	장로회		
1832	이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79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6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3	김영희	19	장로회	2020	이영희	19	장로회		
1833	이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80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7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4	김영희	19	장로회	2021	이영희	19	장로회		
1834	김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81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8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5	김영희	19	장로회	2022	이영희	19	장로회		
1835	이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82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59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6	김영희	19	장로회	2023	이영희	19	장로회		
1836	김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83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0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7	김영희	19	장로회	2024	이영희	19	장로회		
1837	김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84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1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8	김영희	19	장로회	2025	이영희	19	장로회		
1838	이영희	9	장로회	이영회	1885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2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79	김영희	19	장로회	2026	이영희	19	장로회		
1839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86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3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0	김영희	19	장로회	2027	이영희	19	장로회		
1840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87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4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1	김영희	19	장로회	2028	이영희	19	장로회		
1841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88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5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2	김영희	19	장로회	2029	이영희	19	장로회		
1842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89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6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3	김영희	19	장로회	2030	이영희	19	장로회		
1843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0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7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4	김영희	19	장로회	2031	이영희	19	장로회		
1844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1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8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5	김영희	19	장로회	2032	이영희	19	장로회		
1845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2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69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6	김영희	19	장로회	2033	이영희	19	장로회		
1846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3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0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7	김영희	19	장로회	2034	이영희	19	장로회		
1847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4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1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8	김영희	19	장로회	2035	이영희	19	장로회		
1848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5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2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89	김영희	19	장로회	2036	이영희	19	장로회		
1849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6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3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0	김영희	19	장로회	2037	이영희	19	장로회		
1850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7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4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1	김영희	19	장로회	2038	이영희	19	장로회		
1851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8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5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2	김영희	19	장로회	2039	이영희	19	장로회		
1852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899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6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3	김영희	19	장로회	2040	이영희	19	장로회		
1853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0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7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4	김영희	19	장로회	2041	이영희	19	장로회		
1854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1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8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5	김영희	19	장로회	2042	이영희	19	장로회		
1855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2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79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6	김영희	19	장로회	2043	이영희	19	장로회		
1856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3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80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7	김영희	19	장로회	2044	이영희	19	장로회		
1857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4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81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8	김영희	19	장로회	2045	이영희	19	장로회		
1858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5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82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1999	김영희	19	장로회	2046	이영희	19	장로회		
1859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6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83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2000	김영희	19	장로회	2047	이영희	19	장로회		
1860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7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84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2001	김영희	19	장로회	2048	이영희	19	장로회		
1861	이영희	10	장로회	이영회	1908	김영희	17	장로회	김정회	1985	김영희	19	장로회	이영회	2002	김영희	19	장로회	2049	이영희	19	장로회		

※ 송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

1. 권사 3지회 월례회
일시: 21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이빈 주 여름계절학교 일정)

부서명	기간	장소	주제
유아부	7월20일(화)~7월21일(수)	유아부실	새사람이 되었어요
유저부	7월20일(화)~7월21일(수)	제2교육관 1층	가뭇날 천국일꾼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원로목사 차장 기사대행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 2004년도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 전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4년 1월~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제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4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 2004년도 감사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1. 감사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사대상: 전도위원회를 제외한 교회 각 부서
3. 감사기간: 2004년 2월~6월
4. 감사장소: 감사위원회실 (제교육관 302호)

◆ 7교구 태산지 초청회

1. 일시: 오늘 14:00
2. 장소: 충현복지관 지하 2층 강당

이빈 주 새벽기도회 답당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철철주	여국근/최남하	정현민/안노수	이태복/이용현	이종철/최희선	김영훈/홍순애	이종대/이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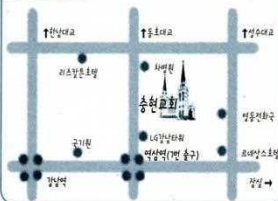
예배담당 안내 (7/19-7/25)

날짜	예배	예배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7/21 수요일	I		장 훈	박명업	이에 아호와와 불이 내려서(왕상 18:36-39) 김성관 목사
7/21 수요일	II		윤승일	소길순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레 7:15-18) 김준희 목사
7/23 금요일	철철주	1교구/소프라노 김희연 베이스권경원 트럼펫 서준성	안지현		김성관 목사
7/25 주일 I			최정규	이종석	대곡 큰 은혜(막 4:6) 이재명 목사
7/25 주일 II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외 소프라노 조수진(아브라함의 향연에 송로이스)	이현덕	김은호	대곡 큰 은혜(막 4:6) 김성관 목사
7/25 주일 III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외(마태오) 트리오(아브라함의 향연에 송로이스)	여국근	강정철	대곡 큰 은혜(막 4:6) 김성관 목사
7/25 주일 IV		참아름다워라 외(마태오) 트리오(아브라함의 향연에 송로이스)	이희식	김종구	대곡 큰 은혜(막 4:6) 김성관 목사
7/25 주일 V		주름살 외에는 외 소프라노 최정규(아브라함의 향연에 송로이스)	최종승	고재승	대곡 큰 은혜(막 4:6) 이정진 목사
7/25 주일완강			김교성	박승길	끝까지 부르짖는 아람(왕 32:22) 김성관 목사

7월 충현기도의 창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사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삼자가 복음으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예배 때마다 영세 전투터 감우에 왔던 심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겨서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5. 여름계절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하
1교구장	교구장비서	목회사	목회사	목회사
엄병철	장동용	이 훈	남민수	장승호
제2교구장	제2교구장비서	제2교구장	제2교구장	제2교구장
김영길	문종구	조인재	김종구	김부경
제3교구장	제3교구장비서	제3교구장	제3교구장	제3교구장
이창호	차진성	김광남	이종욱	안종욱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임무현	이재근	김종호	김종호	이종욱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김대훈	황영일	한승기	김영수	김환기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최순철	이형수	안동현	황대현	김기영
제4교구장	제4교구장비서	제4교구장	제4교구장	제4교구장
최윤덕	이계인	박대영	이대식	정태두
제5교구장	제5교구장비서	제5교구장	제5교구장	제5교구장
박용규	권명호	조종환	배준식	김영덕
제6교구장	제6교구장비서	제6교구장	제6교구장	제6교구장
이성호	박진성	최지훈	노영환	박원규
제7교구장	제7교구장비서	제7교구장	제7교구장	제7교구장
정정길	신상수	고재승	강정현	김영은
제8교구장	제8교구장비서	제8교구장	제8교구장	제8교구장
이달음	정현민	김승곤	함철주	윤석민
제9교구장	제9교구장비서	제9교구장	제9교구장	제9교구장
정선진	안석현			
제10교구장	제10교구장비서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이성기	류병희
제11교구장	제11교구장비서	제11교구장	제11교구장	제11교구장
이종철	이종훈	여국근	고교성	안창덕
제12교구장	제12교구장비서	제12교구장	제12교구장	제12교구장
방준영	나광현	정진호	김영태	고광환
제13교구장	제13교구장비서	제13교구장	제13교구장	제13교구장
유인환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이현덕
제14교구장	제14교구장비서	제14교구장	제14교구장	제14교구장
이희식	최종철	최종철	안석현	이태복
제15교구장	제15교구장비서	제15교구장	제15교구장	제15교구장
정종신	양재호	이성진	조규호	최정규
제16교구장	제16교구장비서	제16교구장	제16교구장	제16교구장
이재명	이정준	이창수	김준희	윤승일
제17교구장	제17교구장비서	제17교구장	제17교구장	제17교구장

■ 여전도사

정인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순	김연석
제18교구장	제18교구장비서	제18교구장	제18교구장	제18교구장
홍순애	이옥주	김갑자	이태훈	김정현
제19교구장	제19교구장비서	제19교구장	제19교구장	제19교구장
조옥자	강덕철	장해국	최민희	전은희
제20교구장	제20교구장비서	제20교구장	제20교구장	제20교구장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김희희	이복순
제21교구장	제21교구장비서	제21교구장	제21교구장	제21교구장
류진희				
제22교구장	제22교구장비서			

- 전담강도 강성규
- 전담지자 서준성
- 전담목사 김소연
- 협력선교사 최호성 (미팅)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아부	교육관 201호
	유저부	교육관 307호
	유년부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토, 오 4: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 4: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 4: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 4: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 4: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